



제빵업계
밥처럼 부담없는
식사대용 빵 선택
너



Life

중견 제약사
사업다각화
속도
L2



지역사회에 실질적 도움을... 가치있는 내일 향해 걷다

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ESG 경영시대

LS증권

2023년, 본격 사회공헌 활동 추진
매년 겨울, 쪽방촌에 연탄나눔 봉사
플로깅 활동, 에너지 절약 캠페인도

지난 1월 9일 서울 영등포 쪽방촌.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곳을 찾은 김원규 LS증권 대표와 임직원 50여명은 리어카로 직접 연탄을 주민들에게 배달하며 따뜻한 마음을 나눴다. 누구하나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임직원들은 “추운 날씨에 힘들었지만 주민들이 반겨주셔서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며 “주민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어 기뻛고, 다음에도 연탄 나눔 활동에 꼭 참여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LS증권은 환경(Environmental)과 사회(Social), 지배 구조(Governance)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 기업의 장기적인 이윤 추구에 도움이 된다는 ‘ESG 경영’을 펼치고 있다. ‘착한 척’하는게 아니다. LS증권은 “ESG가 곧 우리 사회의 공존전략이자, 사회적 책임”이라는 철학을 갖고 있다.

◆사회공헌 활동의 본격화

LS증권의 사회공헌 활동은 2023년부터 본격화됐다. 이전까지는 비정기적으로 진행되던 활동이 2023년부터는 분기별 정기 활동으로 자리 잡았다. 구체적으로 2023년 1월에는 영등포 쪽방촌에서 연탄나눔 봉사를 진행했고, 4월에는 관악산에서 플로깅 활동을 펼쳤다. 이어 9월에는 여의도에서 플로깅을 진행했으며, 12월에는 다시 연탄나눔 봉사를 시행하며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연탄나눔 봉사는 매년 겨울철에 정기적으로 진행된다. 매회 약 3000장의 연탄과 함께 김치, 이불 등을 임직원이 직접 쪽방촌 주민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연탄뿐만아

나라생활에 필요한 물품까지 함께 지원하면서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플로깅(Plogging)은 걷거나 뛰면서 쓰레기를 줍는 환경 보호 활동이다. LS증권은 관악산과 여의도에서 플로깅 활동을 진행하며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플로깅 활동은 회를 거듭할수록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늘어나며, 회사의 대표적인 정기 봉사활동으로 자리잡았다.

LS증권은 2023년부터 탄소 감축을 위한 사내 에너지 절약 캠페인과 기부 활동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연탄나눔 봉사와 플로깅 등 기존의 정기 사회공헌 활동은 물론, 다양한 부문에서 새로운 활동을 추가하며 LS증권은 ESG 경영의 선도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사회공헌 활동 확대 및 새로운 시도

LS증권은 지난해 사회공헌 활동을 한층 확대하며 새로운 시도에 나섰다. 4월에는 여의도에서 플로깅 행사를, 10월부터 11월까지는 약 두 달간 ‘사회공헌 페스티벌’을 진행했다.

기존의 사회공헌 활동이 전사 차원에서 진행됐다면, 지난해부터는 리서치, 경영지원, 리테일, 홀세일, 투자은행(IB), 세일즈 앤트레이딩(S&T), 채권 등 여러 사업부를 5개 부문으로 묶어 각각 독자적인 봉사활동을 기획하고 수행했다. 이를 통해 보다 세분화되고 체계적인 사회공헌 활동이 가능해졌다는 평가다.

지난해는 LS증권의 창립 25주년이자, 사명 변경 및 LS그룹 편입 이후 새로운 비



LS증권이 지난해 여의도 셋강 생태공원에서 무장애길 보수 작업을 진행했다.



LS증권이 지난해 소외계층 아동을 위한 케이크 만들기 활동을 진행했다.

사업부별 체계적인 사회공헌 활동 임직원 봉사활동 참여인원 4배 증가 자발적 참여 확대해 범위 넓혀갈 것

전을 내재화하는 시점이었다. ‘담대한 도전, 내일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LS증권(Let’s Start, Make Tomorrow)’이라는 비전 아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ESG 경영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했다.

부문별로 진행된 주요 활동도 구체화됐다. 지원 부문은 여의도 셋강 생태공원에서 무장애길 보수 작업을 진행했고, 리테일 부문은 소외계층 아동을 위한 케이크 만들기 활동을 기획했다. 홀세일 부문은 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묘역 정화 활동을 펼쳤으며, IB 부문은 창덕궁에서 국가유산 지킴이 활동과 함께 태양광 랜턴 키트 제작 및 영등포 50플러스센터 일손돕기 활동을 진행했다. S&T와 채권 부문은 단체 헌혈 행사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했다.

각 부문이 직접 사회공헌 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 특히

임직원의 참여 인원이 이전보다 약 4배 증가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이 가능해졌다.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한 임직원들은 “동료들과 협동심과 팀워크를 다질 수 있어 의미 있었다. 사회에 기여하고 고객과 성장한다는 회사의 비전을 나눌 수 있었던 계기가 돼 뜻 깊었다”며 소감을 전했다.

◆2025년, 새로운 사회공헌 프로젝트 추진

LS증권은 올해에도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1월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김원규 LS증권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들이 영등포 쪽방촌을 찾아 연탄과 이불을 전달했다.

LS증권은 올해 현충원 묘역 정화, 벽화 그리기, 보육원 봉사, 쪽방촌 푸드마켓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분기별로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방침이다.

LS증권 관계자는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개발하기 위해 새로운 사회공헌 프로젝트와 연간 캠페인을 기획하고 있다”며 “정기적인 활동 외에도 사회공헌의 범위를 넓혀 실질적인 지역사회 기여와 함께 ESG 경영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김대환 기자 kdh@metroseoul.co.kr



LS증권(구 이베스트투자증권) 임직원들이 지난 2023년 연탄나눔 봉사를 진행했다.

/LS증권

메트로 한줄뉴스



▲양현준 13개월 만에 태극마크...홍명보호, 손흥민 등 A매치 명단 발표
▲파넬카킴으로 토트넘 구한 손흥민, 현지 평점 7~8점대 /사진 뉴시스

▲양민혁 선발 출격한 QPR 경기에서 인종차별 신고 접수
▲오현규, PK 극장 결승골...헝크, 덴더르에 1-0 승리

▲김혜성, 빠른공 공략해 2타점 적시타...“도쿄 개막전 여부는 미정”
▲배지환, 교체 출전해 3타수 무안타 1타점...시범 경기 타율 0.500